

< 제 4 장 >

요 4:1-2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하여 갈릴리로 가신 이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하여 갈릴리로 가신 것은 단순한 이동 경로나 상황적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때에 따라 이루어진 사역의 진행이었다.

바리새인들과의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신 것은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사역의 본질을 흐리지 않기 위한 선택이었으며, 동시에 **4절**에서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는 표현이 보여주듯 이는 구속사적 필요에 따른 필연적인 행하심이었다.

예수님의 길은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정해졌으며, 사마리아를 향한 여정 또한 특정한 사람과 영혼을 향한 구원의 목적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사역은 단순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때를 분별하며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요 4:2-6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신 것과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남은 우연한 것인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사건은 계획 속에서 준비된 만남이었다.

이 만남은 단지 한 여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여인을 통하여 사마리아 성 전체에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었다. 그 여인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25절**) 예수님을 만난 후 마을로 돌아가 증언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39-42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셨다는 사실이다.

이는 구원이 인간의 노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찾아오심에서 시작됨을 보여주며, 동시에 그 여인의 증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순종적 응답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인간의 응답은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함께 작용하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인간이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써 구원의 일이 완성되어 가는 것이다.

요 4:7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으러 왔으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신 것은 육체적 갈증의 표현이 아니라 의도적인 요청이었다.

예수님은 육체적 필요를 통하여 영적 필요를 드러내셨으며, 그 여인의 내면 깊은 영적 요구를 채워 주시려는 의도였다.

그러므로 이 요청은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며,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기도 하지만, 그 요구는 우리의 결핍을 드러내고 참된 생명을 얻게 하려는 방식이다.

예수님은 항상 인간의 필요를 출발점으로 삼으시되, 그 필요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그 너머에 있는 영적 본질로 인도하신다.

요 4:7-42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20-24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는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예배의 본질을 드러내는 계시적 선언으로 이어진다. 여인은 예배의 장소 문제를 제기하며 사마리아와 유대 사이의 오랜 종교적 갈등을 드러낸다. 사마리아인들은 계시의 일부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 결과 예배 역시 제한된 인식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서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말씀하시며 계시의 근원과 구속사의 흐름이 유대인에게 주어졌음을 밝히신다.

그러나 이 말씀의 목적은 유대인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기준을 장소나 전통에서 본질로 옮기는 데 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라는 선언은 성전 중심의 제한된 예배가 종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드러지는 새로운 예배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

“아버지께 예배할 때”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관계 중심의 예배를 가리키며 이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으로, 이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형식적·장소적 예배를 넘어서는 선언이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았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는 특정 장소나 형식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살아 있는 관계 안에서 드러지는 예배이다.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에서 “영”은 감정적 열정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안에서 드러지는 예배를 의미하며,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과 복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뜻하며,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계시와 말씀에 근거하여 드리는 예배를 의미한다.

참된 예배는 형식적 행위나 감정적 표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와 진리의 계시 안에서 드러지는 삶 전체의 헌신이다.

<롬 12:1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예배이다>

이는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예배의 본질은 외적인 형식이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러지는 심령과 삶 전체에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배자를 찾으신다.

<예배의 본질>

아담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생명의 근원과 끊어진 상태로 살아가게 되었고, 그 결과 수고와 고통과 질병, 인간 사이의 갈등과 불화 속에서 많은 괴로움을 겪게 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에게는 자신의 존재와 고통을 궁극적으로 말길 대상이 없었고, 탄식은 있으나 응답을 들을 통로가 막혀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이다.

그러므로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행위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죄인 된 인간을 만나 주시기 위해 열어 두신 은혜의 통로이다.

하나님의 아담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었으나, 죄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자격을 잃었다. 이후 후손들이 번성하였으나 그들 역시 죄 가운데 있었기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된 자격을 회복하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인간이 자신의 존재 목적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고백의 자리이다.

따라서 예배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드리는 행위이며, 동시에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 회복을 위한 수단이며 절차이다.

<예배의 개념>

“예배”(προσκυνέω, 프로스퀴네오)는 ‘~를 향하여 엎드려 입 맞추다’, ‘경배하다’라는 뜻을 가지며,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하나님께 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경외와 복종을 포함하는 전인적 반응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특정한 장소에서 드리는 특정한 의식으로 이해하지만, 장소와 형식은 예배의 외적 틀일 뿐이며, 예배의 본질은 그 안에 담긴 관계와 경배의 대상에 있다. 참된 예배는 공간이나 형식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존재의 방향 전환이며,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돌리는 삶의 태도이다.

요 4:43-54 예수님 두 번째 표적

48-5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 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의 표적 중심 신앙을 지적하시며 보이는 것에 의존하는 믿음의 한계를 드러내신다. 그러나 왕의 신하는 단순히 기적을 요구하는 수준에서 나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자체를 신뢰하며 돌아갔고, 이는 표적을 보기 전에 말씀을 믿는 단계로 나아간 믿음이었다. 그 결과 아들의 치유가 확인되었고 그 경험은 개인의 믿음에 머물지 않고 온 집안이 믿게 되는 공동체적 믿음으로 확장되었다.

이 사건은 믿음이 표적을 통해 시작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함을 보여준다.

<마 8:8~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오니라>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위 자체를 신뢰하였고 예수님은 이를 큰 믿음(10절)이라 칭하셨다.

여기서 ‘믿음’(πίστις)은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에 대한 전적인 신뢰이며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는 말씀은 그 신뢰가 실제로 역사 속에서 성취됨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눈으로 확인한 결과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를 붙드는 신뢰에서 출발하며, 그 신뢰는 결국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드러나게 된다.

<치유의 신학적 의미>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병자의 치유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이는 단순한 치료 행위가 아니라 메시아적 표적이다.

예수님은 단지 병을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드러내시는 구원자이시며, 치유는 그 나라의 도래를 가시적으로 보여 주는 계시적 사건이다.

그러므로 치유는 육체적 회복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드러내는 표징이며, 인간의 전 존재가 회복되어야 할 상태를 보여 주는 사건이다.

<믿음과 간구의 관계>

본문에서 왕의 신하는 먼저 예수님께 나아왔고, 간구하였으며, 말씀을 신뢰하고 돌아갔다.

여기서 믿음은 단순한 감정적 기대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결단을 포함한다.

그러나 치유는 인간의 믿음의 크기에 의해 결정되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이며, 믿음은 기적을 만들어 내는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통로이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믿음은 그 역사에 대한 신뢰와 순종의 응답으로 나타난다.

왕의 신하 경우에도 치유는 단순히 한 가정의 문제 해결에 머무르지 않고 그와 온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표적은 믿음으로 이어지고 믿음은 공동체적 고백으로 확장되었다.

그러므로 치유의 궁극적 목적은 육체적 회복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어 생명으로 인도하는 데 있다.

소경 바디메오와 혈루병 여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신 말씀에서, “구원하다”(σώζω 소조)는 단순한 치유를 넘어 전인적 회복을 의미하며 이는 육체와 영혼이 함께 회복되는 구원을 가리킨다. 따라서 예수님은 질병을 고치시는 분을 넘어 죄와 단절로 인해 무너진 인간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구원자이시다.

그러므로 믿음은 기적을 기대하는 확신이 아니라 예수님께 자신을 맡기는 신뢰이며 그 신뢰는 육체적 회복을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이어지고 결국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구원으로 완성된다.

결국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표적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고 그를 믿는 자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치료와 치유>

1. ‘치료’ (θεραπεία, 데라페이아)

병이나 상처와 같은 육체적 문제를 고치기 위한 행위로서 손상된 부분을 회복시키거나 증상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두며 주로 의학적·육체적 차원의 회복을 가리킨다.

2. ‘치유’ (ἰάομαι, 이아오마이 / ἰαή, 라파)

단순히 증상을 고치는 것을 넘어 병이 나아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며 성경에서는 육체적 회복을 포함하면서 동시에 영적·내면적 회복까지 아우르는 전인적 회복을 뜻한다.

그러므로 치료가 외적 회복에 머문다면 치유는 존재 전체의 회복을 포함하며, 치료와 치유는 서로 분리된 개념이라기보다, 치유 안에 치료가 포함되는 구조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원> (σωτηρία 소테리아. Salvation/ σώζω 소조. Save)

성경에서의 구원은 단순히 위기에서 벗어나는 차원을 넘어 파멸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져내는 것을 의미한다.

구원은 헬라어로 두 가지 주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소조’(σώζω)는 육체적 치유와 생명의 보존을 포함하면서 동시에 죄와 사망에서 건짐 받는 영적 구원을 포괄하는 표현이며, ‘소테리아’(σωτηρία)는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 궁극적이고 영원한 구원을 가리킨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 둘을 분리하지 않으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는 사건 속에서 그들을 믿음으로 이끄셔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육체적 회복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구원을 가리키는 표적이며, 그 표적은 결국 영적 구원으로 나아가게 하는 통로가 된다.

육체적 구원은 표적이 될 수 있으나, 영적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사역이다.

<요3:17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에서 사용된 ‘구원’(소조)은 단순한 회복을 넘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총체적이고 궁극적인 ‘구원’(소테리아)으로 이어지는 표징이 된다.

(삼복음서에 나타난 ‘구원’의 대부분은 ‘소조’(치유)이며, 요한복음에 기록된 ‘구원’의 대부분은 ‘소테리아’를 위한 ‘소조’이다.)

<완전한 치유>

완전한 치유는 병이 낫는 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와 영광을 돌리며 관계가 회복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다.

열 나병환자 중 한 사람이 돌아와 감사하였을 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신 말씀처럼, 참된 치유는 육체적 회복을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완성된다.

그러므로 치료가 몸의 회복이라면 완전한 치유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 있으며, 치유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통해 관계로 이어질 때 비로소 온전해진다.

<치유의 목적>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목적은 단지 육신의 고통을 덜어 주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회복된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시는 데 있다.

치유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며 회복된 존재가 하나님께 속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부르시는 사건이다. 그러므로 육체의 회복 이후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남게 된다.

온전한 치유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이어질 때 완성되며, 그때 비로소 우리는 치유를 넘어 참된 ‘구원’인 ‘소테리아’(σωτηρια)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치유’해 주시는 이유이다.

<요한복음 4장>

예수님께서 사람의 외적 조건이나 한계를 넘어 직접 찾아오시고, 그 만남을 통해 생명으로 이끄시는 구원의 방식을 보여준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에서는 예배가 장소나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드러내시고, 생수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신다. 또한 왕의 신하의 사건에서는 표적을 넘어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함을 보여주시며, 그 믿음이 개인을 넘어 공동체로 확장됨을 나타낸다.

이 장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필요를 통해 다가오시되 그 목적을 생명과 참된 예배로 이끄시며,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하시는 구원의 사역을 분명히 드러낸다.